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 정서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신과학교실

대구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어머니와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 그리고 일반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감, 부모 효능감의 정도와 차이를 알아보고, ADHD 아동의 부모교육과 상담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ADHD로 진단된 아동의 어머니 29명,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 19명, 일반 아동의 어머니 36명이었다. 이들 세 집단의 어머니에게 양육스트레스척도, 우울감척도, 부모효능감척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ADHD 아동의 어머니와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서 모두 일반아동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부모 효능감에 있어서는 하위 요인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ADHD 아동 어머니 집단은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 집단이나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ADHD 아동 어머니가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로서의 효능감,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상관분석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높으며,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낮고,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DHD의 하위유형이나 증상정도에 따른 어머니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한국 아동 인성(KPI-C)검사의 과잉행동(HPR)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가 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ADHD의 하위 유형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증상이 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많고, 우울감이 높으며, 부모로서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로서의 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요어 :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양육 스트레스, 우울감, 부모 효능감

* 논문의 요지는 2002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서민정,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신과학교실 임상심리실
E-mail : psyche93@hanmail.net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학령 전기 또는 학령기에 가장 흔히 관찰되는 소아기 장애 가운데 하나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등이 주요 증상이다. 유병률은 DSM-IV(APA, 1994)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의 약 3~5% 정도로 보고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아 정신과 외래환아의 8.7%와 일반아동의 7.6%정도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조수철, 신윤오, 1994). 보통 7세 이전에 발병하고, 유아기때는 수면장애를 보이거나 달래기 힘들고, 먹는 습관도 불규칙하며, 걷기 시작해서는 과잉행동, 충동적인 행동이 뚜렷해지며, 학령기가 되면 또래에 비해 더 빈번하고 더 심하고 더 지속적인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나타낸다. 또한 세부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고, 또래 아동들을 방해하거나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부모나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적이며, 인지적, 행동적 문제와 여러 가지 정신의학적 문제를 동반한다(APA, 1994; 정영철 등 200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이러한 증상은 아동 자신의 사회적, 학업적 기능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이 흔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즉, 첫째, 자녀의 발달에 따른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둘째,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셋째,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인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부족, 그리고 이혼, 배우자의 사망, 이사 등과 같은 특별한 생활사건의 발생이 어머

니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가족스트레스 연구회, 1994).

ADHD 아동의 어머니들이 일반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은 아이들의 특성, 특히 어머니를 힘들게 하거나 아동의 산만한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Mash & Johnston, 1983). 이신영(1998)은 ADHD 아동의 어머니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부모로서의 적절한 역할 수행의 어려움, 무기력감, 부부갈등, 낮은 자존감, 사회적 고립, 우울감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Stratton과 Hammon(1998)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문제 행동은 부모의 우울과 높은 상관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공격적인 소년의 어머니는 부정적인 자아상,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피로, 분노, 고립감 등의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Patterson, 1980). 또한 ADHD 아동의 어머니가 일반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우울정도가 매우 높고, ADHD 아동의 증상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과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다고 하였다(안연옥, 2001). 따라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와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인 문제는 아동의 과잉행동의 심한 정도와도 관련이 높다고 하겠다.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효능감이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즉,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행동을 시도하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신숙재, 1997). Teri와 Gelfand(1991)는 부모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유아의 기질이 까다로울지라도 유아와 민감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능력에 대해 회의감이 생긴 어머니는 자녀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ADHD 아동의 부모는 일반 아동의 부모에 비해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양육 역할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무기력감, 자신의 양육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 부부 갈등, 역기능적 가족관계, 분노나 좌절감, 우울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Patterson, 1980; Mash & Johnston, 1983; Stratton & Hammon, 1998; 이신영, 1998; 최지연, 2001; 안연옥, 2001)에서도 ADHD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키우기가 어렵고 부모에게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와 좌절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다른 심리 및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 부모와의 비교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실제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외현화 문제 및 내재화 문제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서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비교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가 두드러지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의 어머니와 내재화 문제가 두드러지는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 그리고 특정한 문제를 지니지 않는 일반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 효능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임상적으로 볼 때 ADHD 유형중 주의력결핍 우세형보다는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과 복합형 자녀를 둔 경우와 ADHD 증상이 심할수록 어머니들이 더욱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따라서 ADHD 유형

과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부모효능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ADHD 아동의 부모 상담과 교육과정에서 차별화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대상은 2001년 5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대구 소재 K대학병원과 P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방문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아동 중 ADHD로 진단된 아동의 어머니 29명, 불안, 우울의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 19명이 해당되었다. 그리고 일반아동은 대구 시내 모 초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정신과적인 문제로 정신과적 자문,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아동들로 담임교사들로부터 특별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고 평가된 아동의 어머니 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에게 미치는 자녀의 지적인 능력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능지수가 80미만인 아동들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남아가 50명, 여아가 3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10.69 ± 1.51 세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평균 연령은 37.86 ± 3.85 세이고 평균학력은 고졸이었다.

연구방법

ADHD 아동, 정서장애 아동, 일반 아동의 세 집단의 어머니에게 인구통계학적 설문지와 양육스트레스척도, 우울감척도, 부모효능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ADHD 아동과 정서장애 아동의 임상적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의 임상적 진단과

임상심리 전문가의 심리학적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ADHD 아동의 경우, DSM-IV(APA, 1994)의 진단기준에 따라 하위유형을 나누었는데,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에 해당되는 아동은 없어 제외하고 주의력-결핍 우세형과 복합형으로만 분류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김승태 등, 1997; 김지혜, 소유경, 정유숙, 이임순, 홍성도, 2000)에서 한국 아동 인성검사(Korean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KPI-C)의 과잉행동(HPR)척도점수가 ADHD의 임상집단과 정상집단을 가리는데 있어 정확 판별율이 95%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KPI-C의 HPR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가 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된 부모용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서 처음에는 총 10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각 하위척도 당 12개 문항씩 총 36개 문항의 단축형 PSI/SF(short form)가 다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SI/SF를 서혜영(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총점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까지이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3개 하위 요인으로 나누

어 살펴본 신숙재(1997)의 연구를 토대로 하위요인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울 척도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최미례(1987)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마다 0~3점으로 평가되어 총 점수가 0~63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모 효능감 척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하위 요인에는 부모역할에서의 유능감 및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기대를 측정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효능감',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측정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불안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모로서의 효능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불안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불안감이나 좌절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아동 인성검사(KPI-C)

Wirt와 Broen(1958)이 개발한 아동용 인성검사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PIC)를 김승태 등(1997)이 10년간의 우리나라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제작한 한국 아동 인성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의 행동, 정서, 발달 혹은 대인관계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 대해 부모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의 타당도 척도(?, 검사-재검사, L, F)와 자아탄력성척도, 그리고 11개의 임상척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5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임상척도는 발달과 관련된 2개 척도(언어발달척도-VDL, 운동발달척도-PDL), 정서와 관련된 3개척도(불안척도-ANX, 우울척도-DEP, 신체화척도-SOM), 행동과 관련된 2개척도(비행척도-DLQ, 과잉행동척도-HPR), 대인관계와 관련된 2개척도(가족관계척도-FAM, 사회관계척도-SOC), 현실접촉과 관련된 2개척도(정신증척도-PSY, 자폐증척도-AUT)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잉행동(HPR)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료분석

SPSS/Window 11.0 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ADHD 아동의 어머니, 정서 장애 아동의 어머니, 일반 아동 어머니 각 세 집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 효능감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ADHD 증상의 하위 유형인 주의력-결핍 우세형, 복합형의 두 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 효능감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으며, ADHD 증상 정도와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 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결 과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ADHD 아동의 어머니들이 일반 아동의 어머니들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서도 일반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하지만 ADHD 집단과 정서 장애 집단 어머니간에는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집단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비교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세 영역에서 모두 ADHD 아동의 어머니와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가 일반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ADHD집단의 어머니와 정서장애 집단의 어머니간에는 세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울감에서는 ADHD 아동의 어머니가 일반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 집단도 일반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였다($p < .05$). 하지만 ADHD 아동의 어머니와 정서장애 아동의 어머니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

	ADHD집단(n=29) (Mean±S.D.)	정서장애집단(n=19) (Mean±S.D.)	일반집단(n=36) (Mean±S.D.)	F-value	Post Hoc
양육스트레스	106.14±19.64	97.63±21.04	82.75±16.88	12.787*	1>3*** 2>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23.07±5.95	22.79±7.18	15.94±5.24	14.259***	1>3*** 2>3***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4.97±6.02	25.37±5.87	20.83±4.66	6.440*	1>3* 2>3*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10.03±2.60	10.26±2.88	6.92±2.69	14.542***	1>3*** 2>3***
우울감	14.21±9.50	14.74±6.87	8.17±6.10	6.989*	1>3** 2>3*
부모로서의 불안감	14.79±1.88	13.47±3.03	12.19±2.54	8.998***	1>3***
부모로서의 효능감	30.24±5.55	29.53±5.23	33.19±4.73	4.193*	2<3*

* p < .05, ** p < .01, *** p < .001

1: ADHD 집단, 2: 정서장애 집단, 3: 일반 집단

한편, 부모로서의 불안감에서는 ADHD 아동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부모로서의 불안감이 더 높았다($p < .001$). 하지만,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 집단이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 비해 불안수준은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ADHD 아동 어머니와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불안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로서의 효능감에서는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유의하게 낮았으나($p < .05$), ADHD 아동 어머니 집단은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 비해 부모로서의 효능감 점수가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로서의 효능감,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상관분석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높으며, $r = .635$, $p < .01$,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

면, $r = .335$, $p < .01$,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459$, $p < .01$. 또한 우울감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낮고, $r = -.266$, $p < .05$, 반면,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311$, $p < .01$.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과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ADHD의 유형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주의력 결핍 우세형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 복합형의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우울감을 나타내었다. ADHD 유형에 따른 집단별 비교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KPI-C의 HPR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많고, $r = .591$, $p < .01$, 우울감이 높으며, $r = .653$,

표 2.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양육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우울감	부모로서의 불안감	부모로서의 효능감
양육스트레스	1.000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09**	1.000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835**	.664**	1.000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624**	.547**	.639**	1.000			
우울감	.335**	.347**	.249*	.148	1.000		
부모로서의 불안감	.635**	.555**	.549**	.518**	.311**	1.000	
부모로서의 효능감	-.459**	-.286**	-.589**	-.267*	-.266*	-.229*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유형별 점수 차이

	주의력결핍 우세형 (N=6) mean rank	복합형 (N=23) mean rank	Mann-Whitney U	Z	P
양육스트레스	12.80	14.87	49.00	-.662	.610
우울감	8.70	15.76	28.50	-1.744	.081
부모로서의 불안감	12.60	14.91	48.00	-.579	.563
부모로서의 효능감	13.80	14.65	54.00	-.211	.833

p<.001, 부모로서의 불안감도 높았다, r=.600, p< .01. 하지만 부모로서의 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r=-.099, p>.05.

논 의

본 연구에서 ADHD 아동 어머니는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

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ADHD 아동 어머니들이 일반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 Johnston(1983), 최지연(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도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서는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자녀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일상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자녀가 부모의 기대보다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세 영역에서 모두 ADHD 아동 어머니와 정서 장애 아동 어머니는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의 특성들인 부주의성, 충동성과 과잉행동, 사회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장면에서는 물론, 일상관계에서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반영한다.

한편, 외현화 장애인 ADHD 아동 어머니와 내재화 장애인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 집단간에는 양육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아동의 장애가 외현화 문제이건 내재화 문제이건 어머니는 모두 상당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안동현 등(2001)의 연구에서 ADHD 아동 부모와 다른 정신장애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김자윤 등(2002)이 자폐증, 정신지체를 포함한 발달장애군과 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가 포함된 행동장애군 그리고 정서장애, 불안장애, 틱장애, 야뇨증 등을 포함한 기타장애군의 세 집단으로 나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세 집단간 양육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본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한편,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양경화(2001)는 일반 아동과 자폐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에서 자폐아동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으며, 다른 연구들(김영미, 1990; 이숙자, 1993)에서도 장애 아동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장애 아동의 존재가 가족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외현화 문제이건 내재화문제이건 간에 지속적인 아동의 문제 행동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어머니가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더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들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과잉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부모의 우울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한 Stratton과 Hammon(1998), 안연옥(2001)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예상대로 본 연구의 정서 장애 아동 어머니는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더 우울감이 높아 Poznanski와 Znull(1970)의 우울증을 보이는 소아의 부모에게서 우울증의 빈도가 높다는 보고와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ADHD 아동 어머니와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의 우울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상이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정서장애보다 ADHD 아동 어머니의 경우가 아동이 보이는 1차적 증상(부주의성,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인해 양육과정에서 아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데 따른 좌절감과 무력감을 반영하는 면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 임상장면에서 볼 때, ADHD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정이나 아동과의 관계에서 더욱 좌절감과 무력감, 우울감을 느끼며, 어머니-자녀 관계가 악화된 경우가 많다. 반면,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의 정서적 문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측면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반영하는 면도 작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인데,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간에 '부모로서의 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

로서의 불안감'은 ADHD 아동 어머니가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DHD 아동 어머니는 일반 아동의 어머니 처럼 스스로 부모로서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로서의 좌절감이나 불안감이 일반 아동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의 가족들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더 감소한다고 한 Fischer (1990), Mash와 Johnston(1990)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아마도 이는 어머니 개인의 성격적 특성, 정서적 문제, 가족 문제 등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ADHD 아동의 연령이나 유병기간,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라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다. 즉 어머니가 자아개념이 낮고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낮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 더 오랜 기간 ADHD 증상을 보였거나 증상의 정도가 더 심할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도 점점 더 감소할 수 있겠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본 연구대상의 ADHD 아동 어머니는 비교적 자녀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고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자기개념은 긍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과 아동의 ADHD 증상 심각도나 유병기간을 고려하여 부모 효능감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겠다.

정서장애 아동 어머니는 일반아동 어머니에 비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더 낮은 반면,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현화 장애인 ADHD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정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내재화 장애인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는 부모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ADHD 아동의 부모교육에서는 부모로서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서장애 아동의 부모교육과 상담에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겠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로서의 효능감,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상관을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높고, 부모로서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아동의 부모들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의부모로서의 적절한 역할 수행의 어려움, 무기력감, 부부 갈등, 낮은 자존감, 역기능적 가족관계,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이신영(1998)의 연구와 관련된 결과이다. 또한, 신숙재(1997)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Quittner와 Glueckauf 및 Jackson (1990)은 어머니의 만성적 양육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등의 스트레스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비해 아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불안, 우울을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낮고, 부모로서의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우울, 불안과 같은 어머니의 정서적 문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과도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적 문제는 어머니-자녀 관계와 매우 큰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의 경우, ADHD 아동의 하위 유형에서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에 해당되는 아동은 없어 주의력 결핍 우세형과 복합형으로만 나눌 수 있었다.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의력 결핍 우세형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 비해 복합형 아동의 어머니 집단이 약간 높은 우울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사례수 차이가 매우 커서 다소 제한적인 결과로 볼 수 있겠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제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는 KPI-C의 HPR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많고, 우울감과 부모로서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로서의 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ADHD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가장 의미있는 변인이 아동이 보이는 증상의 심각성을 보고한 Anastopoulos와 Guevremont, Shelton 및 Dupaul(1992)의 연구를 일부분 반영한다. 안연옥(2001)은 과잉활동수준이 높은 ADHD 아동의 어머니가 일반아동 어머니보다 우울감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신영(1998)의 연구에서도 ADHD 아동의 과잉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더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 태도를 보이고 더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결혼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ADHD 증상이 심할수록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적 문제가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되며, 증상이 심한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아동의 문제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어머니 본인에 대한 상담과 개입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방법상의 문제점과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각 집단의 사례수, 지역 등이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

감에 대한 평가가 모두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한 주관적 평가결과여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면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ADHD, 정서 장애, 일반 아동 세 집단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 즉 아동 양육 이전부터 갖고 있는 각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정서적 문제 등에 대한 고려와 통제를 할 수 없었다. 또한 부부관계나 다른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대상 아동에 따른 어머니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만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ADHD 아동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는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의 아동이 없고, 주의력 결핍 우세형 아동의 수가 적어서 ADHD의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은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가족스트레스 연구회 (1994). *엄마의 스트레스*. 창지사.
-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희, 황순택 (1997). *한국아동인성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영미 (1990).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자윤, 안동현, 고복자, 이영교, 이효경, 황혜순 (2002). 소아정신과 환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지지체계. *신경정신의학* 41(6),

- 1130-1141.
- 김지혜, 소유경, 정유숙, 이임순, 홍성도 (2000).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의 진단도구로서 부모용 행동 평가지의 타당도 연구: 한국아동인성검사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1(2) : 282-289.
- 서혜영 (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동현, 김자윤, 고복자, 사승언, 이상은, 이영교, 이효경, 황혜순 (200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부모에서의 양육스트레스. *정신건강연구* 20, 128-136.
- 안연옥 (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과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경화 (2001). 일반아동과 자폐아동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자 (1993).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증후에 관한 연구-다운증후군과 자폐아동 어머니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신영 (1998).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특성-고과잉 행동아동, 저과잉행동아동, 정상아동의 비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철, 이종범, 박형배, 정성덕, 성형모, 사공정규 (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연령에 따른 특성비교. *생물치료정신의학회* 7(1) : 137-146.
- 조수철, 신윤오 (1994). 파탄적 행동장애의 유형들에 대한 연구. *소아정신의학* 5. 141-149
- 최미례 (1987). 대학생 우울 집단의 정서 일치성 효과의 일시적으로 유도된 정서상태가 정보처리미치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연 (2001).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pp78-85.
- Anastopoulos, A. D., Guevremont, D. C., Shelton, T. L., Dupaul, G. T. (1992).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5), 503-520.
- Fischer, M. (1990). Parenting stress and the child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37-346.
- Giband-Wallston, J.,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Johnston, C.,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Mash, E. J., Johnston, C. (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 old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Mash, E. J., Johnston, C. (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13-328.
- Patterson, G. R. (1980). Mothers: The unacknowledged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5(5), 212-232 .
- Poznanski, E. O., Zrull, P. J. (1970). Childhood depression: Clinical characteristics of overtly depressed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3, 8-15.
- Quittner, A. I., Glueckauf, R. L., Jackson, D. N. (1990).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6-1278.
- Stratton, C. W., Hammond, M. (1998). Maternal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s to life stress,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3), 299-315.
- Teti, D. M.,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irt, R. D., Broen, W. E., Jr. (1958). Booklet for Personality Inventory for Children. Minneapolis, MN:Authors.

The Study of the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Parenting Efficacy on the Mother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Children

Min-jung Seo^{**} Eun-Jin Chang^{**} Chul-Ho Jung^{**} Sang-Yong Chei^{***}

^{**}Department of Psychiatr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Fatima hospital Neuro-Psychia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parental education and counseling through investigating the parenting stress, depression, parenting efficacy on the mothers of ADHD children, emotional disorder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The subjects are composed of 29 mothers of ADHD children, 19 mothers of emotional disorder children, and 36 mothers of normal children. The mothers of these groups complete 'Parenting Stress Index', 'Beck Depression Inventory',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he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re significantly higher on the mothers of the ADHD group and the emotional disorder group comparing with the mothers of the normal group of childre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s the subscales of parenting efficacy is significantly lower on the mothers of emotional disorder group of children,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is not found between the mothers of ADHD children and the mothers of normal children. In parenting sense of anxiety, the mothers of ADHD children are higher than the mother of normal children. In the correlation analysis of parenting stress, depression, parenting efficacy, the higher parenting stress, the higher depression and parenting sense of anxiety. The higher depression, the lower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and the higher parenting sense of anxiety. However the higher severity of ADHD symptoms the more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parenting sense of anxiety.

Keywords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Parenting Stress Depression, Parenting Efficacy